

## 하나뿐인 제이에게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나도 한때는 그대들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았노라.  
그러나 인생은 너무 짧았노라.”

제이,

어느 가을날 오후, 성묘 길에 낫선 무덤 앞에서 있는 묘비명이 내 눈길을 끌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제는 누렇게 변해 가는 잔디가 오랜만에 푸른 가을 하늘에 빛대어 불현듯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내 몸에 더운피가 흐름을 절절하게 느꼈습니다. 이는 분명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이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 젊음의 시간들이 더 흐르기 전에 나는 주소도 모르는 당신에게 회상의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뿐이니 주소 없이도 얼마든지 받아 보리라는 생각으로 말입니다.

묘비명처럼 젊음 또한 짧았습니다. 이제는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들을 뇌리에 남아 있는 몇 조각의 기억으로만 모자이크처럼 짜 맞추어 보고, 빈 자리는 별 의미 없는 시간들로 채워 봅니다. 오직 하나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어 이제는 시계 바늘 가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 늦은 밤, 연구실에서 불빛을 벗하며 유리창 밖의 나를 봅니다. 조금은 멀리서 나를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등 뒤에 느끼면서.

제이,

나는 대학 시절, 일상적이고 진부한 강의 시간을 빠져 나오면, 시와 서정 소설을 더욱 탐독했습니다. 조금은 친구들에게 따돌림받기도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내가 친구들을 따돌린 셈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친구들이 풀밭에서 그 당시 흔하던 '마이티' 카드놀이를 할 때도 나는 한 번도 끼지 못하고, 공릉동 하숙방 구석에서 "미라보 다리"나, "가을날", 『독일인의 사랑』에 감동해 하던 아류 문학도에 가까웠습니다. 아니 며칠 밤을 지새며 번역도 했었지요. 현세에서 만날 수 없는 제이 같은 당신을 낚은 시집이나 소설책을 넘겨가며, 구석구석 찾아 헤맸었습니다. 그 후 시간의 먼지 속에 원고는 어디론가 한 장 한 장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대학 시절, 장위동에서였던가, 휘경동에서였던가 나는 어느 중년 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신체가 불편하고 대단히 염세적이었던 그는 사진을 전공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현실을 비판하던 터였습니다. 그와 나는 만남을 계속하면서 서로가 틈새를 메울 수 있음을 감지하고, 급속히 가까워졌습니다. 둘이서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러면서 내 학점은 하향곡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불안했지만 평범한 일상의 껍질을 깨고 나와, 내가 모험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

에 발을 들여 놓기로 했습니다. 젊음이 있었으니까요. 그는 교과서 지식에만 의존했던 나의 짧고 상투적인 우리나라 역사관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나라는 제주서 서울까지 비행기로 한 시간 남짓 걸리는 그런 작은 나라가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농사 짓는 것보다는 기마 민족이었고 광활한 민주 대륙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는 좁은 온실에서 철없이 피는 화초만을 가꾸던 대학 2년생을 넓은 몽골 지방 기마 민족의 기상과 바람 몰아치는 평원으로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제는 옛 고구려의 광활했던 영토를 되찾아야 하는 마음으로 잡초처럼 살아가야지. 무엇보다도 21세기 실재와 가상 공간이 모두 열린 세상에서 쫓겨다니는 가려진 짐승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기를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이,

그렇게 서너 해가 지나고, 그래요, 이제 넓은 세계로 나가 크게 숨쉬고, 나 자신을 시험하기로 했습니다. 공릉동 배밭을 뒤로 하며, 선배들과의 경쟁에서 유난히도 어렵게 이루어낸 국비 유학을 몇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고 중요한 일이 마지막 순간에 풀리듯, 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접어 두었던 소설 속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친구를 통한 우연의 만남, 전생애 소매 끝이 스쳤을까 말까 하는 그런 우연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우리는 필연의 만남이 되었습니다. 다리에 다리를 걸쳤던 많은 친구들에게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만남이란 헤어짐을 전제로 한다지만, 마지막 부분은 일단 미루어 두기로 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러할 테니까요. 그래요, 내게 내려진 크고 작은 이 축복들을 하나하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열렬히 살아가야지.

제이,

태평양을 건너 미국 땅에 내리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자로 그어 놓은 듯 반듯반듯한 야경에 먼저 놀랐습니다. 혼돈에서 갑자기 정돈의 세계로 들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조금은 긴장이 되면서도 미지의 도시, 지금은 내 마음 두 번째의 고향 캠브리지에 안착하였습니다. 여기서 나는 솔직히 난생 처음 공부라는 걸 시작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생각하고 토론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기지와 상상력을 동원하여 문제 해결에 접근해가는 훈련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우리네 대학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겠지요. 제이, 지금도 우리 형편은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고3 때 틀에 박힌 지성의 절정에서 대학 생활 유유자적하는 사이, 이네들은 몇 백 년 묵은 도서관 불 밝히며 세계의 지식 시장에 높은 울타리를 쳐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10년 이상을 공부했던 내 영어는 어디로 갔는지, 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허탈감으로 첫 학기를 하버드 스퀘어 동네 하얀 콘도미니엄 방에서 고민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후손이 여기서 말 수는 없었습니다. 팔 걷어 붙이고 다시 두 발로 일어났습니다. 젊음과 가정을 저당 잡히고, 밤 시간과 주말, 휴일을 온통 바쳤습니다. 봄에 킬리언 코트의 잔디가 살아나고, 뉴잉글랜드 지방의 가을 찰스 강변에 단풍이 드는지도 모르는 채 몇 해를 묻혀 지냈습니다. 자기네 조상들의 방정식과 아이디어로 무장된 이들과 한국에서 남의 공식 곁핍기로 차일피일한 내가 이제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자투리 시간을 병에 모아 연구실에 와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졸업이 가까워지고, 나는 그 해 크리스마스 이브, 파리행 비행기 표를 배수진으로, 잠자지 않아야 할 마지막 한 달을 실험실에서 지새며, 인간 능력의 한계선을 넘나들

었습니다. 몇 번씩이나 포기하고 싶었던 학위였습니다. 그러나 나락에 빠져드는 나를 흔들며 깨우는 나의 사랑을 보며, 나의 알아보지도 못할 방정식을 한 줄 한 줄 타이핑하는 그를 보며, 나는 뜨거운 불꽃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5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이렇듯 지나갔습니다.

제이,

다음날, 짐 챙길 겨를도 없이, 캠브리지로 뒤로 하고, 어두운 대서양 밤하늘을 날아 내 대학 시절 꿈의 도시,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빛이 바랜 프랑스 말 몇 마디로 겨우 숙소를 정하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하철로 우선 개선문으로 향했습니다. 일단은 자축해야 된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그 해 파리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음울했습니다. 그날밤 차가운 샹젤리제 거리의 카페에서, 작은 찻잔 속의 짙은 커피를 음미하며, 삶의 의미를 사색하였습니다. 옛날 그림책에서 보던 풍경들이 갑자기 움직이는 현실로 찾아 왔습니다. 좁은 골목길의 어느 평범한 레스토랑, 그래요, 우리 삶의 이유는 짙은 보졸레 포도주 속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제이,


그리고도 또 긴 여정을 거쳐, 이제는 관악, 가을이면, 내 연구실 유리창 앞 떡갈나무 빨강계 영근 열매에 내려앉아 하루를 여는 까치 두 마리를, 오늘도 이른 아침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하루에 25시간을, 일주일에 8요일을, 일년에 13월을 사는 마음으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제이,

언젠가 꿈의 대화를 생각합니다. 당신이 생맥주잔을 기울이며 물은 적이 있지요. 살아간다는 것, 즉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요. 내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을 때, 제이, 당신은 알 수 없는 미소 지으며, 기다리는 것이라 했어요. 기억해요, 롱펠로우의 “삶의 송가” 마지막 시귀를?

“자, 그럼, 우리 모두 일어서 살아가리라,  
주어진 어떠한 숙명에도 굴하지 않고,  
뜨겁게 추구하고, 이루어가며  
힘들여 일하고, 또한 기다림을 배우리라.”

제이,

그럼 안녕. 

#### 서군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핵공학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한국원자력연구소 위원·신뢰도 랩 책임자, 미국 웨스팅하우스 원자력 안전부 선임연구원, 프랑스 EDF 국립유체역학 연구소 연구원 등을 역임하였다. 연구 관심 분야는 원자로 안전, 열수력 설계, 중대사고 실험/해석, 액체금속 열유동 실험/해석이며, 국내외 기술특허를 각 1건씩 보유하고 있다.